르뽀 한 걸인 소년의 이야기

누가 그대의 창밖을 울고 가는가!

저는 어려서 은광구 '소년의 집'이라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이 보고싶어 저는 13세, 제 동생은 11세 때 도망, 그곳을 나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버스에서 신문을 팔며 아침에는 신설동에 위치한 제일전자텔레비전학원을 다니고 밤에는 야학에서 대학생 형들에게 중학교 과정을 배우며 제 동생과 저는 그런대로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고 있는 가리봉동 하숙집에서 하숙비가 밀려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잠시 학원과 야학을 뒤로 미루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하철에 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나 냉정해 진 것 같아요. 그럴수록 아주머니 아저씨의 작은 사랑을 기다리며 이만 물러갑니다.

절대 실망을 안기지 않겠습니다.

성의껏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지하철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맨인 소년

행복한 가정 그리워 고아원 가출
신원 불명으로 취직도 안돼

우리가 그 소년을 만난 것은 지하철에서였다.

소년은 먼저 지하철안의 사람들에게 종이쪽을 나눠주고 잠시 기다린 다음 다시 그 종이를 거둬갔다. 더러는 냉담한 표정을 지었고 더러는 동전을 손에 쥐어 주기도 했다. 그러한 행위들이 다음칸, 그 다음칸에서도 반복되어졌다.

2월 25일의 밤10시 무렵, 3호선은 꽤 한산했다. 소년에게 접근해는 것은 의외로 쉬웠다. 소년은 쪽지를 나눠주고는 창밖을 얼마간 내다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시종일관 딥덥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소년은 뚝박에 선선히 응해 주었고 앞칸에 앉아 있던 동생과 함께 일행은 옥수역에서 내렸다.

김형근(가명·17세)군이 마리아 수녀원에 딸린 은광구 '소년의 집'에 맡겨진 것은 네살 때였다. 어머니가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장면이 가끔 떠오르는 외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

소년이 '소년의 집'에서 도망을 친 것은 순전히 부모님이 있는 가정과 자유스런 생활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다. 소년과 그 친구들은 텔레비젼을 보면서 늘 그 속에 나오는 가정을 부러워 하곤 했다. 우리도 부모님만 찾으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거니 생각했다. '소년의 집'은 헌신적인 수녀들이 운영하는 그저 그런 사회복지 시설이었지만 단체생활에서 오는 약간의 부자유에서 그는 뛰쳐 나가고 싶어했다. 수녀원에 딸린 국민학교를 다니다 6학년 때 그는 동생을 데리고 친구들과 함께 '부모를 찾으러'고아원에서 가출했다.

부모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당장의 끼니도 막막했다. 어떻게 해서 부산의 대동기업이란 신발 공장에 취직했다. 아주머니들과 미성년자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형세 하청업체였다. 그는 동생과 함께 회사에서 알선한 곳에 하숙을 정했다. 회사에서는 김형근군의 월급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하숙의 주인에게 바로 넘겨주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는 스스로 돈을 만져볼 수 없자 석달정도만에 그만두었다.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하숙의 주인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던 것이다.

그 뒤로는 신문팔이 일을 했다. 담당 구역의 형들에게 하루에 만원씩 바쳐야 하는데 도망가다 맞은 적도 많다고 한다.

모은 돈이 꽤 되자 함께 가출했던 친구를 따라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가리봉동에서 동생과 둘이 쓰는데 한달에 십만원하는 허름한 하숙집을 구했다. 하숙집 주인도 인정많은 분이었고 같이 하숙하는 공장에 다니거나 대학에 다니는 형들도 그와 동생에게 잘해 주었다. 한 형을 통해 '동녘'이라는 야학도 다니고 기술학원도 다니면서 장래를 설계했다.

가진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일자리도 구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국졸의 학력에 미성년이었고 신원보증이 안되므로 취직을 할 수가 없었다. 다시금 친구들을 따라 신문팔이 생활로 돌아갔다.

김형근 소년이 지하철을 돌면서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게 된 것도 역시 같이 가출했던 한 친구의 권유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그러대요, 이거 뒤에서 깡패가 시켜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같이 실기가 막막해서 나선 친구들이 대부분일거예요. 사실 신문배달을 하기는 했지만 그걸로는 동생과 둘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소년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다. 소년은 평범하게 생긴 무덤덤한 인상인데 반해 동생은 예쁘장하고 애띤해 보였다. 형과 동생은 불과 두살차이였지만 동생은 형에게 완전히 기대고 있었고 누가 봐도 김형근 소년은 의젓한 형이었다.

세파에 많이 시달린 이 열일곱살의 소년은 이제 더이상 부모님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다만 주유소 같은 고정지에 취직해서 야학과 기술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고 동생을 공부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따름이다. 나는 언뜻결에 주유원 자리를 알아봐주마고 약속했고 그에게 대학주보사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그 아이의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선배들에게 수소문을 했지만 약속한 시간까지 소년에게선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다.

글…임정미 記者
사진…고혁민 記者

현장취재 청량1동 철거지구를 찾아서

80명 시위자에 8백명 공권력
연행에 저항하던 한 주민 실신키도

'영구임대 쟁취하여 빈민해방 이룩하자'

지난 4일 지녁7시쯤 우리학교 학생들은 청량1동 철거민 시위현장으로 급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홍릉산 공터에 도착했을때에는 이미 가수용단지에 있는 철거세대 40여명과 민정련 회원 10명정도가 용역회사에 원천봉쇄되어 진정과 대치하고 있는 중이었다.

청량1동 철거지구는 3년여 동안 농성을 벌여오고 있는 곳으로 현재 현신공영, 청량리경찰서, 재개발조합, 구청, 철거세대 등이 5자 회담을 갖고 가수용단지를 짓기로 타협을 보고 건설이 진행중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오후4시쯤 이미 철거된 지역의 빈집에 화재가 나서 주민들이 불을 끄려고 하자 경찰과 전경이 몰려와 일어난 것이다.

골목골목마다 대치하고 있는 전경들을 교란시키기 위해 홍릉사거리 등에서 학생들의 가두시위를 지도하던 민중정치연대지부장 문종석씨는 "화재의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덮어씌우려고 하는것 같습니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경찰측 주장은 이와 다르다.

"철거세대주들이 오늘 오후 4시경 용역회사에 불을 내어 전경 1개중대, 구청장을 포함한 구청에서 20여명, 전기를 고치기 위해 한전에서 3명이 나왔으나 주민들은 불을 끄기 위한 소방차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인근주민들은 자기가 사는 집주위에 불을 지르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며 적극 철거세대주를 옹호했고, 한 아주머니는 "용역회사측에서 자재공급을 계속 미루었기 때문에 철거세대주들의 불만이 많았어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대치상황은 우리학교, 서울시립대, 고려대 학생들의 원천봉쇄지역을 돌파한 시위를 통하여 차츰 궤도를 이탈해 밤11시쯤이 되어서는 전경들이 모두 물러간듯했다.

가수용단지내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철거세대주와 학생들은 오늘 사건의 평가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서 김길용 추진위원장은 "건설회사측이 자재공급 약속을 계속 미뤄왔다. 그리고 이번 방화도 입산건설측의 행위로 보인다. 이런 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다른 철거지역에서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경찰이든 건설회사측이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적거리면 그에 맞서 계속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투쟁의지를 밝혔다.

또 철거 대책 위원회 한 관계자는 "8백여명의 경경백골단등 공권력에도 불구하고 고작 3,40명의 청량1동 주민들을 한명도 연행하지 못했습니다. 3년여 동안 계속되어온 우리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나태한 모습을 지워야 하겠습니다"라고 오늘의 투쟁을 평가했다. 그리고 "1천 1백 50세대의 철거민위 폭력으로 내몰고 이제 50세대 남은 철거 세대주들에게 조차도 폭력을 휘두르는 용역회사 철거깡패들이 가수용단지를 지어준다고 해서 철거민을 돕는 것으로 속아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밤12시이후부터는 사건이 급속히 역전되기 시작했다.

철거세대주들과 학생들이 시립대생 한명등 두명의 학생이 시위도중 연행된데 대해 청량리 경찰서 앞에서 연행학생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때 갑자기 몰려온 전경 2개중대에 의해 7,80여명의 학생전부와 주민대다수가 연행되어졌다. 이들은 중랑, 노원경찰서등 네곳에 나뉘어 구속되었다.

한편 연행에 저항하던 주민 이금례씨는 전경들에게 짓밟혀 병원에 옮겨졌고 뇌출혈가능성이 있다는 진단결과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마감된 이날의 농성은 영구임대주택 쟁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도 잘 시행되지 않는 철거민 생활보장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생존권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투쟁이 낳은 결과라 하겠다.

(전재연 記者)

기지촌을 다녀와서

기지촌…

내가 처음 동두천이라는 이름을 들은 건 윤금이씨 사건에서였다. 그리고 이곳이 이땅 굴욕의 실체임을 가슴으로 느낀건 기지촌 활동의 시작에서였다.

우리학교 제 1기 기활대원으로서의 부담감과 기지촌 현실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가지고 시작했다. 1주일 후 나는 가슴저림과 소박한 사랑을 배우고 나올 수 있었다. 그것은 이 땅에 군림하는 미국에 대한 철저한 분노이며, 언니들의 삶에 대한 알팍한 동정심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였다.

함께 윷놀이를 하다가 성병 검사를 받으러 간다던 ○○언니, 엿되고 수수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진한 화장으로 출근하는 △△언니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엄마없는 송이와 매춘여성 엄마를 둔 선이의 그늘, 클럽주인 포주의 딸인 민이의 화려한과 밝음에는 아이러니를 느껴야 했다. 담배락의 나체 여인상과 밤새 웅웅거리는 팝송, 미군의 횡포속에 방치되어 자라는 이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도 모르게 깊어진 정을 느끼며 헤어진 날, 우리가 준 노트를 받고 즐거워 뛰어가던 아이들의 모습과 작은 편지 하나에도 너무도 기뻐하던 언니들의 모습을 보며 엄마나 가슴 벅차던지.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도저히 이대로 못가겠다며 가다가 다시 돌아와 나를 부둥켜 안은 언니의 체온을 기억한다.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커다란 의미가 되고,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커다란 힘이 된다는 걸 느끼며 행복하기까지 했다.

뺏빳.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다는 곳, 뻐를 묻어야 된다는 곳. 이 마을의 옛이들이다. 처음엔 무심코 흘려버렸다. 그러나 우리 언니가 그토록 나가고 싶어하는 걸 알고난 지금은 그 이름에 담긴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기활 마지막날. 클럽방문을 위한 동두천에서의 밤은 그야말로 충격과 분노의 연속이었다. 이곳의 기지는 바로 윤금이씨 살인 주범 케네스 마틸이 있던 제 2사단이다. 버스로 30분이 소요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며, 바로 그 땅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땅의 일부로 되어 있어 우편물이 해외우편으로 접수되어 들어간다는 사실 때문이다.

내국인 출입금지, 여자는 통과
우리 땅이 왜 캘리포니아로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린 또 왜 이제야 알게 되는지 어추구니 없었다.

끄리고 더 기막힌 클럽방문, 여기도 '내국인 출입금지. 그러나 여자는 통과'.

안에서 본 춤추는 미군과 여자들… 멍하니 그들을 쳐다보며 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왜 지나가는 우리가 당연히 미군의 놀림거리가 되어야 하는지. 화가 나는데도 왜 무서워 피해야 하는지, 도대체 누가 이 거리의 주인인지… 그날 밤 나는 식민지의 설움을 체험했다.

미군 모두가 정승은 아니다. 그들을 짐승으로 만들고 언니들을 클럽으로 향하게 하는 실체를 보았다. 그건 미제국주의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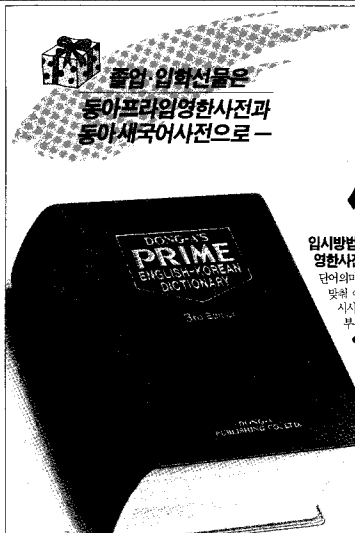
배알없는 정부이며, 쓸데없는 편견에 고집 피우는 자신임을 말이다. 내 말이 너무 심한 비약이라고 느낄까?

나의 부족한 글로 나의 경험을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부족한 지면에 언니들의 삶을 내가 한낱 얘깃거리로 만들지 않았나 걱정된다.

하나 확실한 건 기활을 통해 보다 성숙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분들을 통해 소중한 걸 많이 배웠다. 그리고 기활대원 모두가 '우리두레'라는 후속모임으로 모여 이후 여러분께 자신있게 기활을 제안합니다.

박현희
〈사학·3〉

동아출판사
문의 : (02)862-5439



올바 입학선물은
동아프라임영한사전과
동아새국어사전으로 —

사전의 명성은 오랠수록 좋고
사전의 내용은 새로울수록 좋다.

입시방법이 달라지듯
영한사전 선택도 달라져야 합니다.
단어의미 변천단계와 다양한 표현 예문으로 새로워진 입시제도에 맞춰 이해식으로 쉽게 정리한 동아 프라임 영한사전 - 시사, 경제, 문화, 예술등, 시사어 및 장르별 용어해설집을 부록으로 엮어 중·고생 및 대학생들이선호하는 사전입니다.
●국내최대의 17만 5천어휘 수록
●실용적 용례와 다양한 표현 예문
●국내최초 매킨토시 편집으로 깨끗한 활자와 인쇄
●시사어 및 장르별 용어집 부록
●중요단어의 의미변천 단계 요약
●시사분야의 신어 5000어 수록
●어형변화, 과생어 어법 관련 문법 사항 별도 표시 ●찾아보기가 편리한 반달색인 프라임 영한사전'이 새로 나왔습니다.

영한사전은
동아프라임영한사전
국어사전은
동아새국어사전이
좋습니다.

우리말 고유의 다양한 뜻과 의미를
제대로 살렸습니다.
●1989년에 시행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1990년에 발표된 〈표준어 모음〉에 따라 표기
●1986년 개정 고시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정확한 발음 표기
●표준 발음법에 따른 정확한 발음표기
●학교문법에 따른 문법체계정리
●다양한 뜻 갈래에 따른 적절한 활용례
●동의어·유의어·상대어등 여러 관련어 제시
●살아 숨쉬는 생활언어 표기에 주력
●현대적 의미를 살린 동음이어휘 풀이
●찾아보기가 편리한 반달색인 새국어사전'이 새로나왔습니다.

동아 프라임영한사전

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사전시리즈
깨끗한 환경 우리가 먼저

한한대사전 7832 85,000원	(탁)새국어사전 2854 20,000원	(탁)프라임영한사전 2976 19,000원	프라임영한사전 7304 17,000원	현대영한사전 1264 9,000원	신한영소사전 1869 9,000원	신영어소사전 1466 12,500원	최신한영군사용어사전 1466 23,000원	새교과영어단어숙어연구 1344 8,000원
한한중사전 1615 46,000원	(탁)새국어사전(반달색인) 2864 21,000원	(탁)프라임영한사전(반달색인) 2978 20,000원	현대영한사전 772 8,500원	현대영한사전 1054 9,500원	신한독조사전 792 9,000원	신활용국어 576 8,000원	현대한어사전 1592 18,000원	(국)새국어사전 832 9,500원
새한한사전 2437 22,000원	프라임영한사전 2704 17,000원	프라임영한사전 2756 1,000원	현대관광사전 240 8,500원	현대한한사전 666 9,500원	콘사이스영한사전 760 11,000원	콘사이스영일사전 1362 11,000원	기초영문법 867 3,000원	(고)기영어사전 248 20,000원
새국어사전 2448 17,000원	프라임영한사전(반달색인) 2704 18,000원	프라임영한사전 2496 17,000원	현대한국사전 873 9,500원	현대개활용국어 976 9,000원	신일한수사전 804 8,000원	신불한소사전 804 8,000원	신영학습도한사전 798 17,000원	영어입문사전 798 7,500원
새국어사전(가죽) 2448 19,000원								한국문화백과사전 704 45,000원